

옆친데 덮친 파업...기아차·삼성 등 대책 부심

한진사태·철도 파업 이어 화물연대 파업 초비상

대체 차량 투입 피해 줄이기 속 장기화 땀 지역기업 타격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차량 42% 화물연대 소속 ‘직격탄’

광주·전남지역 물류 운송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광양항 물동량 감소 피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나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등 지역 기업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 차량 투입에 나선 가운데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기업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전남지역 수출입 업체의 피해가 최대 15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상황에서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은 화물차량까지 멈춰서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 파업 왜?**＝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시장 발전방안’이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수급 조절 폐지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화물시장 규제 완화 철회 ▲표준임제 폐제와 악속 이행 ▲지입제 폐지 ▲주선료 상한제 실시 ▲표준 위수탁계약서 의무화 ▲과적근절 위한 화주 책임 강화 ▲통행료 전일 할인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발전방안이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와 택배차의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한 화물차 공급 과잉과 운송료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표준임금제 폐제와 지입제 폐지, 민자도로 통행료 할인 등은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철도파업 피로도 확산**＝2주 넘게 이

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9일 현재 전국 1만 8350명의 노조원 중 40.3%인 7397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KTX는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은 각각 61.3%, 63.1%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화물열차 운행 횟수도 평소 대비 42.8%에 그치는 등 호남권의 경우 48개 노선 중 28개 노선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당초 컨테이너 운송차질을 화물차로 대체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코레일 측은 “화물연대 파업까지 가세하면 화주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키운 한진해운 사태**＝한진해운 사태 이후 광양항 물동량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차량의 비중이 높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진해운 사태로 전남지역 수출업체 등

의 중장기 피해 금액이 최대 15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금액은 56억원, 앞으로 발생할 피해금액은 올해 말까지 30억원, 내년 이후 89억∼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기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자도 49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여수·광양항에는 비상이 걸렸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사업용 화물차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이 3.2%에 불과한 반면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 운송차량 741대 가운데 308대(41.56%)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여수·광양항의 하루 평균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9203TEU(반입 5716TEU, 반출 3487TEU)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등 백남기 추모 집회

변호사 119명 “부검영장 집행 반대”

광주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와 행진이 잇따랐다.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는 지난 8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백남기농민 진상규명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여수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도 야간 촛불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들은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씨의 죽음과 백씨 시신을 부검하려는 검경의 시도를 국가폭력”이라며 규탄하고, 강진명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부검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성명도 이어졌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최근 ‘고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인의 입장’ 자료에서 “설사 주치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물대포 직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 상황속보를 경청이 지난 5월9일 이후 파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공공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한다”며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진명 전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는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전남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서 규모 2.2 지진...기상청 “김제 발생” 잘못 통보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이 지진 관측 지역을 잘못 통보해 혼선이 빚어졌다. 기상청은 ‘지진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께 광주시 동구 남쪽 7km 지점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기상청 직원이 진앙지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날 오후 2시7분께 ‘전북 김제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영터러 문자가 기자들에게 발송됐다.

기상청은 30여분 뒤인 이날 오후 2시36분께 ‘오후 2시36분께 광주시 동구 남쪽 7km 지역 규모 2.2 위도 35.78에서 35.08로 수평’이라는 정정문자를 재발송했다.

기상청은 “위도를 35.08로 입력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처음에 35.78로 잘못 기재돼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날 지진은 규모는 낮았지만 지난달 ‘경주지진’ 당시 국민안전처가 특강 재난

문자 발송으로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엔 지진통보 업무를 넘겨받은 기상청이 미숙한 대응으로 혼선을 가중시킨 것이다.

한편 이번 지진(규모 2.0 이상)은 지난 2013년 6월 광주시 동구 동쪽 3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2 지진 이후 3년 만에 광주에서 발생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강진·신안·완도·여수 지역 내륙과 해역에서 규모 2.4~2.7 지진이 4차례 감지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규모 3.0 이하 지진은 일반적으로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구멍 뚫린 광주 학교 보안시스템

11개 초교서 대낮 절도행각...학교전담경찰은 잠잠

30대 절도범이 대낮에 광주지역 초등학교 10여 곳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일선 초등학교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10년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보안이 강화됐지만 이 절도범은 교문을 통과해 범행 후 학교를 빠져나올 때까지 교사나 배움터 지킴이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특히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두 달 동안 3차례나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단 한 차례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학교전담경찰도 절도 사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실과 빈 주택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30)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5월1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광주의 11개 초등학교에 모두 18차례 침입해 빈 교실과 사물함에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지난달 5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정모(여·38)씨의 주택에서 70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빈집에서 3

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교문 관리실이나 행정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정씨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도 등에서 마주전 교사들의 질문에도 “학부모입니다”라고 답하며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주로 점심 시간을 활용, 빈 교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교사들이 교실 책상이나 사물함 등에 지갑을 보관하고도 문단속을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피해를 본 학교는 학생들의 범행으로 예단하거나 사건을 쉬쉬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정씨는 두 달 동안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3차례에 침입하는 등 올해에만 4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단 한 차례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확인된 범죄 외에도 지난해와 올해 더 많은 초등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초등학교에서 조차 피해 사실을 숨기는 등 학교들이 신고를 하지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전 비서관 자택·계좌 압수수색

김용구 동생...납품업체도

검찰이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에 이어 친동생인 김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최근 김 전 비서관의 자택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광주시에 사무용가구를 납품한 업체 2~3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계약 업무와 관련이 없는 김 전 비서관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졌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광주시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구 전 자문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계약 업무 부당 개입 의혹을 포착,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자문관의 친동생이자 유정현 광주시장의 비서관을 지내다 지난달 30일 사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뒤바뀐 두 집 지번 주소 바로잡아 달라” 민원에 해법 고심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2개의 주택 지번이 바뀌어 우편물이 옆집으로 가는가 하면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따른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해법을 고심 중.

○...9일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최근 화정동 ○○번지 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인데 제가 산 집 주소는 앞집 주소이고 집 소유주도 앞집으로 돼있으며, 앞집은 제 소유로 돼 있어 불편이 이

만저만 아니다”면서 “뒤바뀐 두 집의 지번 주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구청 확인 결과 두 집은 1989년 준공 당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각각 제대로 된 지번이 부여됐다가 이후 건물매매 과정에서 주소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는데, 구청 관계자는 “건물주끼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수백만원씩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묘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12억7천4백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강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정가 15억 ▶ 최저가 10억5천4백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식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 최저가 4억9천1백
- ★ [토지] 남양 신도시 중앙공원 중심상업지역 대지 439㎡ 조망좋은 상가, 오피스빌 건축 추천 감정가 8억6천5백 ▶ 최저가 6억6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평동역 인근 기계기구포함 토지 5,895㎡ 건물 2,816㎡ 감정가 29억5천5백 ▶ 최저가 21억5백
- ★ [토지] 나주시 대호동 답 3,379㎡ 2종일반주거 동산대인근 주택단지 건축추천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7백
-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상가] 광주 북구 용봉동 국모빌딩 12층중 6층 건물 327㎡ 감정가 6억4천1백 ▶ 최저가 6억4천1백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용두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4천 월 2천2백7십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하기취득)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역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 대로변 대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 5천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의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